

지원회사

LOGO

---


입 사 지 원 자  
지 원 직 무  
홍 길 동

## 이 력 서

( 희망연봉 : 회사 내규에 따름 )

( 지원 부문 :

웹디자인&amp;웹퍼블리셔 )

	성 명	석현정	한 자	石弦定
	생년월일	1997년 06월 13일	연 령	만 24세
	E-mail	gkekswnd1717@naver.com		
	휴 대 폰	01020756813	비상연락처	01029236890(모)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7길 21, 202호		

## 1. 학력사항

년 / 월	학 교 명	학 과	졸 업 구 분
2016년 03월 ~ 2021년 02월	중앙대학교	공예과 (금속, 섬유)	졸업
2013년 03월 ~ 2016년 02월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2. 교육사항

년 / 월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관	비 고
2021년 04월 ~ 2021년 09월	UX/UI 반응형 웹 디자이너&웹 퍼블리셔 양성과정(디자인&코딩)4	그린컴퓨터아카데미 (강남)	수료

## 3. 직무능력사항

프 로 그 램(사용언어)	활 용 능 력
포토샵	사진 합성, 디자인 작업 등 기본 기능 사용 및 응용 가능
일러스트레이터	기본적인 도형, 패스 및 패턴 등의 작업 가능
클립스튜디오	드로잉 및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가능
HTML/CSS	css와 html을 이용한 기본적인 코딩 작업 및 웹디자인 가능
CAD	기본적인 기능 활용, 간단한 도면 작성 가능
MS Office(워드/엑셀/Power Point)	기본적인 문서작성, 함수활용 및 PPT 작성 가능

#### 4. 포트폴리오

주 제	URL(총 페이지 수)
<p>졸업전시</p> <p>-사이로 띄우다</p>	<p><b>-사이로 흐르는</b></p> <p>정처없이 흘러가 어딘가에 닿을 때까지, 다양한 것들이 채우기를 바라며 만물을 띄워 보내는 마음을 형상화했다.</p> <p><b>-띄우다1&amp;2, 투영</b></p> <p>묵묵하게 자신의 길로 흘러가는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유기적인 변화를 나타낸다.</p> <p><b>-SPACE</b></p> <p>저마다의 가치와 변화 속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일은 순탄치 않지만, 그럼에도 흘러가는 모습을 담았다.</p> <p><a href="http://www.yck.kr/html/contents/show_view?idx=6112">http://www.yck.kr/html/contents/show_view?idx=6112</a></p>
웹 디자인(UX/UI)	<p>-경복궁(web&amp;mobile) 리디자인 / 딥티크 반응형 페이지 제작</p> <p><a href="https://skfjsu.github.io/portfolio/">https://skfjsu.github.io/portfolio/</a></p>

#### 5. 자격 및 면허취득 사항

취 득 일	자 격 증 명	발 행 기 관
2021년 05월 02일	컬러리스트 (필기)	한국산업인력공단
2010년 03월 25일	ITQ 한글, 파워포인트 A	한국생산성본부

# 자 기 소 개 서

## 지 원 동 기

" 이해를 겸비한 웹 퍼블리셔 : 디자인과 코딩, 두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싶습니다. "

대학시절 전공에서 디자인을 배우면서, 제 관심 분야는 항상 디자인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1학년 당시에는 관련 수업을 다수 수강하기도 했고, 전공도 디자인 분야인 만큼 높은 관심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 디자인 또한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디자인 중 하나인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 본격적인 디자인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 시안의 코딩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과 달리 디자인 한 시안과 실제 코딩을 통해서 구현되는 화면에는 비율 등의 문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실감하고 코딩에 대해서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웹 디자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뒤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뒤를 이었지만 대학생할 중에 혼자서 코딩 지식을 습득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랐고, 졸업 이후에 관련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코딩에 대해 배우고, 디자인을 코딩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굉장히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코딩을 아우르는 웹퍼블리셔가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두렵지 않은 도전 : 어려움을 이겨낼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 성 장 과 정

저는 경찰관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 중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말은 '배움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무언가를 배우는 점에서는 시간, 비용, 재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분야는 많았고, 당연히 제가 그 모든 분야에 재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미 있는 분야에 도전하는 경험은 제가 어느 것을 잘 할 수 있고, 또 없는지 알게 되는 귀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술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고, 대학 진학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 서울/경기 인근에서 홀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일은 갓 스물이 된 저에게 큰 설렘인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실제로 스무 살, 첫 한 해 동안은 적응을 위해 애를 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 생활은 마냥 좋을 것 같았지만 그 한 해는 제게 실패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일 년이 끝나고 휴학을 선택하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하는

	<p>시간을 가졌습니다.</p> <p>그러던 중 저는 문득, 힘들다고 포기한 채로 지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 보기도 하고, 그 돈을 모아 짧은 해외여행도 다녀와 보았습니다. 폭 쉬었다 생각이 될 만큼 쉬기만 해 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때 제가 보낸 시간에 대해 시간을 버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낸 기억이 그 이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더 빠르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b>‘나는 한 번 이겨낸 적이 있으니 다음이 있더라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b> 라는 생각은 제가 휴학을 선택한 일 년 동안 얻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p>
<p>학 교 생 활 및 교 육 활 동 (경 험 사 항)</p>	<p><b>“ 실질적인 역량의 향상 : 원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b></p> <p>웹 디자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배우기 위해 그린컴퓨터아카데미를 방문하여 해당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독학하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갈피를 좀처럼 잡기 어려워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는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는 점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고 배우기 시작하자 점점 제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이 곳에서 웹 디자인&amp; 웹 퍼블리셔 과정을 수강하면서,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기초적인 코딩을 배운 게 가장 의미 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경우에는 대학 시절 쌓은 경험이 조금이나마 있어, 특히 디자인한 화면이 코딩을 통해 실제로 구현되는 부분에서 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 교양을 통해 곁핍기로 몇몇 단어나 겨우 알고 있었던 만큼, 코딩은 재밌으면서도 동시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디자인한 것과 같이 코딩할 수 있는지도 항상 저를 고민에 빠지게 했지만, 무엇이 잘못되어서 오류가 생겼는지 찾아내고,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p> <p>저는 배운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초보였지만 최대한 홀로 해결해보고 싶어서 시간을 들여 고민을 해 보기도 하고,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질문을 하거나 검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자바스크립트나 제이쿼리 등,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꾸준히 배워서 능숙해질 수 있도록 갈고 닦으려 합니다.</p>

<p><b>성 격 장 점 및 단 점</b></p>	<p><b>“ 좋은 수용력과 어울리기 : 경험을 통해 제 몫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b></p> <p>저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편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곧잘 듣곤 했습니다. 중, 고교 시절, 제가 지낸 학급에 다른 친구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친구가 있었는데 직접 그 친구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의견에 동조를 잘 하기도 했고, 제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다른 의견이 더 좋다면 기꺼이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수용력이 좋아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의견을 어려움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은 제 성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너무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먼저 혼자 해결해 봐야겠다, 생각하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 개인의 능력이 성장을 할 때도 있었기에 이 점을 깨닫기 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성격의 단점이라 할 부분을 알게 된 만큼 개선을 위해 스스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할 때 나는 사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해 보기도 하고, 먼저 혼자 짐작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작은 경험들을 통해 도움을 청하고, 의견을 말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p>
<p><b>입 사 후 포 부</b></p>	<p><b>“ 자기계발을 일상으로 : 멈추지 않고 배워나가겠습니다.”</b></p> <p>학창시절 점심시간이면 제가 주로 있던 장소 중 하나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다양한 서적을 읽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고, 배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서점 또한 좋아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늘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제가 살아온 내내 그랬던 만큼, 이후에도 이런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갈고 닦아 한 사람 몫을 능히 해내는 사원이 되고자 합니다. 영어 공부, 자격증 취득 등 현 시점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p> <p>입사 후 6개월 이내에는 웹 디자인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는 어학 점수와 컬러리스트 자격 취득을 이루려 생각하고 있</p>

습니다. 디자인과 코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운 기술, 더 새로운 트렌드가 발빠르게 나오고 있고, 뒤쳐지지 않는 웹 디자이너이자 퍼블리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점차 더 많은 영역에 걸쳐 제 역량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1 년 월 일

성명 : 석현정 